

신안군 '섬 겨울꽃 랜선축제' 성료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52일간 성공적 마무리 애기동백꽃 1만7000여 그루 2004만 송이

신안군은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 1월31일까지 압해읍 송공리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52일간 열린 '섬 겨울꽃 랜선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랜선 축제는 3km에 이르는 애기동백숲에 식재된 1만7000여 그루의 하양, 분홍, 빨강의 애기동백꽃 2004만 송이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랜선축제로 진행했다.

랜선 축제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관람객들은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2004만 송이의 애기동백꽃 향연을 만끽하도록 안내했다.

방문객들은 13만2000㎡(4만여 평)의 넓은 공원을 한가로이 산책하며, 탁 트인 5000만여 평의 바다정원을 내려다보니 답답하던 가슴이 뻥 뚫린 듯 힐링의 시간을 보냈으며 입을 모았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축제 기간 서너 차례 내린 함박눈으로 소복이 덮인 빨간 애기동백꽃이 어우러진 멋진 풍경은 우리 모두에게 위로를 주었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계속 사랑받는 공원이 되도록 더욱 잘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애기동백 숲이 있는 천사섬 분재공원은 다양한 분재와 쇼나 조각품 전시, 야생화원,



눈 오는 분재공원의 애기동백. (사진=신안군 제공)

수목원, 초화원, 산림욕장도 갖추고 있다.

주변에는 1004섬 신안에서 생산되는 빨라지, 생선회 등을 맛볼 수

있는 식당과 인근 도시지역에서 접근성이 좋아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신안=이덕주기자



목포시, 안심 수돗물 공급 위해 총력

2023년까지 총사업비 214억원 투입해 노후 상수관 교체

목포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 원도심권 일원을 중심으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관내 20년 이상 노후된 상수관로 중 누수 등 민원이 잦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만호동 건어물 시장과 향동시장, 유달동 보리마당 일원 등 8개소, 총 6.9km 구간의 노후 상수관 교체를 완료했다.

올해는 연산동 연산주공, 대양동 근화 희망타운 주변, 죽교동 흥일고와 산정동 신안비치 사거리 일원 등 4개소, 2.5km 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수했다.

시는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214억원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원도심권역 총 43.2km의 노후 상수관 교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신뢰받는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힘써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 선정을 위해 환경부와 지속 협의를 지난해 12월 사업대상지로 확정(47억원)돼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사업은 수돗물 공급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수질과 수량을 확인하는 한편, 누출, 탁수 등 수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위기대응 및 재발 방지가 가능한 선진화된 시스템이다.

시는 "최근 발생한 탁수를 교훈으로 삼고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영암군, 2020 지방자치단체 행정 정책 행복지수 평가 '우수상' 수상

영암군은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실시한 2020 지방자치단체 행정지수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1차적으로 주거, 교육, 문화, 경제 등 10개 분야에 대한 정량평가와 비대면 방식의 주민 설문조사를 통한 2차 정성평가 후 평가심사위원회의 적격성 심의를 거쳐 최종 수상 자치단체를 확정하였다.

전동평 군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영암 건설을 위하여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가

이번에 우수한 결과로 평가받은 것 같아 가슴이 벅차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군민들께서 우려와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것 같아 송구했는데, 다행히 우리 지역의 코로나 확산세를 진정시키고 이번 행복지수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하루빨리 코로나 시국을 극복하고 다시 우리 군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와 활기가 넘쳐나는 고향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기자

무안군, 고구마 가공식품 용역 착수

지역 농특산물 이용 경쟁력 있는 가공식품 개발 목표

무안군과 지난 1월 28일 무안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단장 김명진)에서 고구마 가공식품 개발 용역 착수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지역 특화자원과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지역 역량강화,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내는 사업으로 군은 작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승인받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가공제품 개발 용역업체의 실행과제 설명과 액션그림, 관내 가공업체 등의 의견교환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실행과제로는 고구마, 단호박 페이스트를 단순처리한 반가공품 2종과 완제품 3종 개발 등이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경쟁력 있는 가공식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전략품목 개발과 농촌 융복합산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고구마 가공 식품개발에서 유통까지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061-454-8112) 또는 농정과 식품산업팀(☎ 061-450-4022)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이기성기자

영광군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하세요"

3월12일까지 읍·면사무소

영광군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받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 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논 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 증명서류, 지급대상자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논 이모작 직불금 전액 환수 ▲3년 등록 제한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엄격한 처벌이 따르게 된다.

영광=서희권기자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에너지스카우터 한수원

